

부산-중국(쑤저우시) 국제친선교류 탁구대회 결과보고서

1 대회목적

- 양국 생활체육간 동호인 상호 교류를 통한 상호 공동발전 및 우호 증진
- 양국간 정서를 바탕으로 공통적인 탁구교류를 통한 양국의 역사와 문화, 생활체육을 이해하고 자국의 생활체육 발전을 위한 토대 마련

1 대회개요

- 가. 출장기간 : 2019.12.6.(금) ~ 12.10(화), 4박 5일
- 나. 출 장 지 : 중국 장쑤성 쑤저우시
- 다. 출 장 자 : 기획총무부 최혜림 담당
- 라. 출장일정

날짜	내용
12.6(금)	· 김해공항 집결
	· 김해공항 → 상하이 푸둥국제공항
	· 상하이국제탁구연맹박물관 견학 및 중식
	· 쑤저우 숙소 도착 및 만찬
12.7(토)	· 쑤저우 현지 탁구클럽 방문 및 교류
12.8(일)	· 쑤저우 탁구협회 친선교류 경기 참석
	· 교류 만찬
12.9(월)	· 운하유람선 및 자유시간
12.10(화)	· 호텔 집결 및 상하이 도착
	· 상하이푸둥국제공항 → 김해공항

마. 주요업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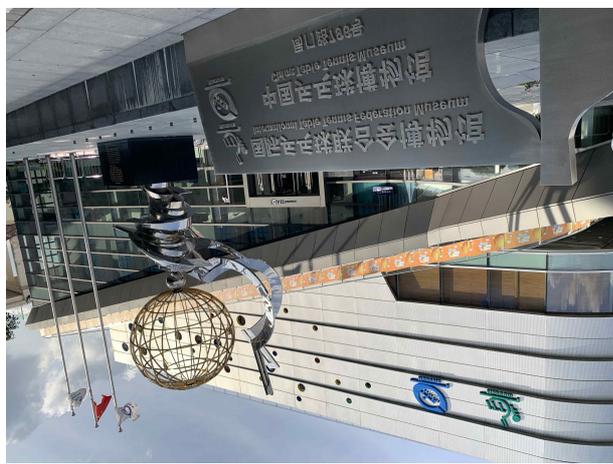
- 현지 탁구클럽과의 교류 및 우호 증대
- 글로벌 스포츠 전문 박물관을 통해 양국의 역사와 문화 이해
- 탁구 기술 및 운영시스템의 교류와 협의

2

세부수행업무

가. 상하이국제탁구연맹박물관 견학

- 일시 : 2019.12.6.(금) 00:00 ~ 00:00
- 장소 : 상하이국제탁구연맹박물관(黄浦区局门路796号)
- 대상 : 참석자 22명
- 내용
 - 전시 및 설치물 관람 (세계탁구운동 100년의 역사 등)
 - VR 탁구 체험
- 견학 중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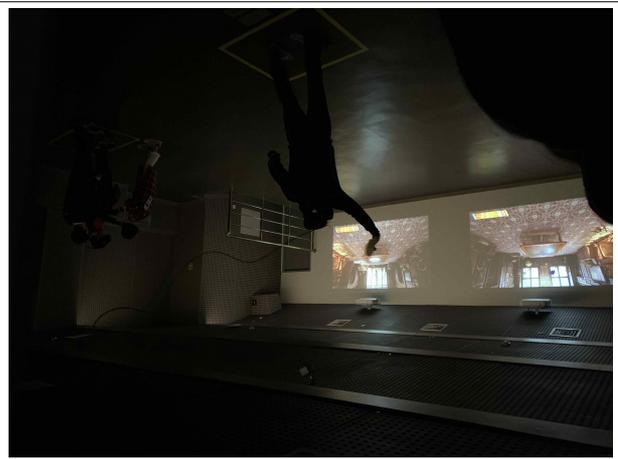
상하이국제탁구연맹박물관 외관



세계탁구의 역사 탐방



다양한 설치물 관람



VR 탁구대결

다. 쑤저우 탁구협회 친선교류 경기 참석

- 일시 : 2019.12.7.(토) 09:30 ~ 16:30
- 장소 : 개원체육관 전용탁구장 1층, 2층
- 대상 : 부산광역시탁구협회 22명
- 내용 : 재중한인탁구협회 선수들과 단식/단체전 대회
- 대회진행방법
 - 개인전(단식) :
 - 1) 8개조 구분 후 조별 예선, 조별 1-2위 토너먼트 진출
 - 2) 4강까지는 3판 2선승, 결승은 5판 3승
 - 단체전(3단 1복, 팀당 4-5명)
 - 1) 단체 화합의미에서 각 지역별 선수 분산
 - 2) 토너먼트식 전부 3세트 경기(2:2 무승부일 경우 복식 승리팀 승)
- 대회 중 사진



쑤저우시 탁구협회



경기 모습



수상 사진



탁구협회와의 교류 만찬

- 부산광역시탁구협회는 당초 상해와의 국제교류대회를 준비하였으나 또 다른 인연이 되어(전 사무처장 김선우 도움) 쑤저우와 처음으로 친선교류를 진행하게 되었다. 탁구협회 박종우 부회장이 단장으로, 김태경 부회장이 부단장으로 총 22명의 탁구협회동호인이 함께 김해공항 상해에서 쑤저우로 이동하였다.
- 중국에 도착한 첫날, 상하이 국제탁구연맹 박물관을 견학하였다. 이 탁구박물관은 중국에 오픈한 첫 글로벌 스포츠 전문 박물관이며 해외에서 설립하고 발전해온 글로벌 스포츠 조직 소유의 박물관이 중국에 자리잡은 첫 박물관이라고 하여 기대감이 유독 컸다. 8,000여 점이 넘는 해외 소장품과 3,000여점의 중국 소장품을 관람할 수 있었으며 특별히 VR이라는 현대기술로 마주보지 않고 떨어져있는 두 명의 선수가 경기를 치루는 모습은 흡사 전국대회를 방불케하는 호응으로 진행되었다. 미래의 스포츠 모습을 예측할 수 있는 시간이자 지난 수백년의 탁구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 둘째 날, 현지 탁구클럽과의 방문교류는 쑤저우 올림픽 스포츠센터에서 진행되었다. 해당 센터는 2018년 6월에 오픈한 신식 건물로 1층에는 대형 암벽등반장, 당구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등과 함께 소규모, 대규모의 탁구장이 있고 2층에는 수영장이 있는 대형 스포츠 종합단지로서 굉장히 큰 규모와 깔끔한 시설에 놀라고 경기 전 현지 동호인들의 환대에 또 한번 놀랐다. 우리가 준비한 선물에 비해서 너무 정성어린 선물을 받아 다들 좋은 첫인상으로 기분 좋게 경기에 임할 수 있었다. 비록 현지 동호인들이기에 말은 통하지 않았으나 4시간 이상의 시간을 탁구로 함께하며 서툰 영어로 오가는

격려는 언어의 장벽을 넘어 ‘탁구인’으로 화합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 셋째 날, 쑤저우 탁구협회와의 친선교류는 개원체육관에서 진행이 되었다. 이 날은 쑤저우 탁구협회 회장님 외에도 상해와 소흥의 탁구협회 회장님과 선수들이 최소 2시간에서 5시간 이상이 걸리는 먼 거리를 찾아와 개인전과 단체전에 참여하였다. 특별히 개인전은 부산시탁구협회의 최연소자인 박진선(21) 선수가 3등을 하는 이변이 있었고 단체전은 화합을 위해 지역을 섞어 진행하였는데 경기마다 웃음꽃이 끊이지 않았다. 마치고 진행된 교류 만찬을 통해 한국을 떠나 중국에서 살아왔던 분들의 이야기와 고향의 노래를 함께 부르며 친목을 다지는 시간을 가지며 다음을 기약하였다.

- 이번 국제교류대회를 통해 탁구강국이라 불리는 중국의 화려한 열정과 깊은 역사를 엿볼 수 있었고 특별히 할아버지가 손녀에게 탁구를 가르치는 장면이 기억에 남는다. 3대가 모여 한 아이에게 탁구를 가르치기 위해 온 가족이 공을 잡고 다같이 하나의 스포츠를 즐기는 모습에서 중국이 탁구에 가지는 애정이 일시적인 오락이 아닌 끊임없이 이어져온 문화임을 느낄 수 있었다.